

충남안전체험관 '개관 1주년 이벤트' 활짝

등록 2017-03-12 08:12:25



【홍성·예산=뉴시스】충남도 안전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체험관을 찾은 어린 학생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고 있다.

【홍성·예산=뉴시스】유효상 기자 = 충남도 안전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.

1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, 충남안전체험관은 개관 1주년인 오는 14일 방문객(선착순 600명)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.

또 안전트리 선물 추첨, 페이스페인팅, 소방인형과 함께하는 사진촬영, 소방 특수장비 전시회 등도 진행, 지난 1년 동안의 성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.

천안 태조산공원 내에 위치한 충남안전체험관은 재난 및 소방에 대한 형식적 이론·강의 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해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건립했으며, 2015년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3월14일 정식으로 개관했다.

충남안전체험관 방문객 수는 지난해 12만 명을 돌파했으며, 체험객 94.2%가 "만족한다"고 답했다.

충남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, 매년 1월 1일,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하고,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, 입장료는 무료다.

전체 체험 시설을 모두 관람·체험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별 소요 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.

김성복 도 안전체험관장은 “충남안전체험관이 아무런 문제없이 개관 1주년을 맞은 것은 방문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선진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yreporter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